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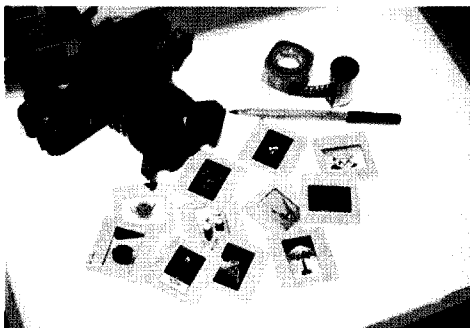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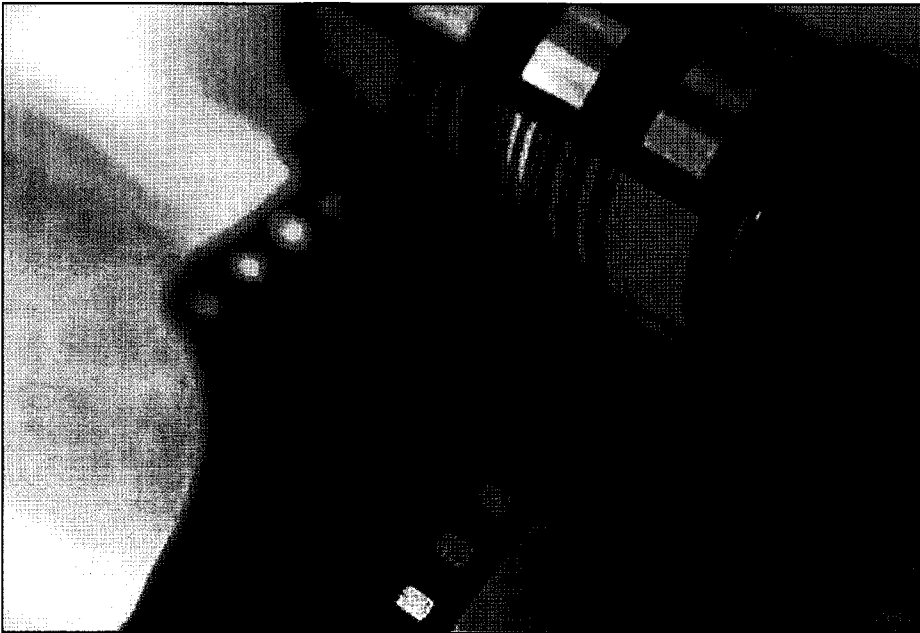
나의 병아리 기자시절



이효진

월간 아우피시 편집장
lee727@howow.com

관심분야 및 취미는 영화, 골프, 컴퓨터, 음악이다. 암벽이라는 미션임파서블에 도전하며, 모든 일에 즐겁게 살아가려는 사람. 왜? 나는 소중하니까...



한국컴퓨터기자클럽으로부터 기고 청탁을 받았다. 내용은 초보 기자 시절의 이야기란다. 처음에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신참 시절 이야기를 하라니,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바쁘데 무슨 기고를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2~3년차 기자들이 업체를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도 이 바닥에서 노땅 소리를 들을만하다.

어쩌면 이 주제는 언젠가는 한번 써보고 싶었던 글이었는데 모른다. 8년이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가장 빨리 급변하는 컴퓨터 전문지에서만 일을 한 나는 매달 일어나는 사건(?)과 경험으로 무장되어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눈도 꿈적하지 않게 되었다.

협박, 회유, 법적 문제, 갈등, 밤샘 등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의 키워드들이다. 그 동안의 노하우가 몸에 배면서 후배 기자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늙은이 노파심이라고 하겠지만, 그 동안 일을 하면서 후회스럽고, 아쉬웠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수많은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쓴다. 글에는 사례를 통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협

때는 1994년 쯤으로 기억한다. 당시 취재부의 한 여기자가 컴퓨터 자격증 교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을 미끼로 교재만 팔아먹는 악덕 회사를 진단,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좋은 주제와 취재로 기사가 나간 후 독자의 반응은 좋았지만, 문제가 된 회사의 항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기사에 대한 어필이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는 계속되었고, 얼마 후 회사의 임원이라는 두 사람이 취재부를 찾아왔다.

다짜고짜 험한 말부터 꺼내놓기 시작한 그들은 당시 가명으로 취재한 취재원(교재를 구입한 피해자)까지 알아내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 무슨 근거로 기사를 썼는가, 정정 기사를 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 여기자와 편집장, 몇 명의 남자 기자가 참석한 자리는 이내 험한 분위기로 바뀌고, 욕설이 난무했다. 당시 편집장은 여자였지만 남자 이상의 호탕한 성격으로 그런 분위기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었다. 오보의 내용이 없으니 정정 기사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회사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으니 책임을 지라

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급기야는 사소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 때 1년차였던 나는 단지 남자 기자라는 이유로 자리에 있었고, 든든한 선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한 차례의 소동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폭력배를 동원한다, 담당 기자에게 테러를 가한다'라는 식의 위협을 가했다. 그 날 이후로 몇 일 동안 남자 기자들이 번갈아 가며, 담당 여기자들 집까지 에스코트했던 일이 기억난다.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이다. 물론 여기자에게 아무 일도 없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생생하다.

이 사건이 비록 내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기자의 사명감에 대한 교훈을 준다. 취재 당시에도 업체로부터 기사화 하지 말라는 식의 사소한 트러블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보고도 대중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기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마도 일부 기자 중에는 업체의 청탁, 뇌물 등으로 갈등을 겪거나 경험했던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에피소드 2. 뼈아픈 실수

한 번은 잘못 나간 기사 한 줄 때문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적이 있다. 당시 국내 PC 시장 조사와 제품 소개를 하는 상품 정보 기사를 담당했었다. 취재를 모두 마치고 기사를 써서 문제 없이 발행이 되었다. 마감을 마치고 다음 호 취재를 하러 외출한 후 돌아왔더니 선배 기자가 큰 일이 생겼다며 겁을 주는 것이다.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다름 아닌 지난 호에 기사가 나간 PC 업체 중의 하나였다. 그 업체는 현재도 PC를 제조하는 잘 알려진 대기업 중의 하나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기사에 나간 회사 이름이 잘못 나갔다. 회사 이름의 네 글자 중 뒤의 두 글자를 잘못 썼던 것이다. 대기업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완전 실수였다. 그 때는 귀신에 홀린 듯 왜 이처럼 간단한 것을 틀릴까, 나 자신도 자책을 했다. '인터넷서널'을 '인터넷서널'로 혼동해서 쓰는 것처럼 기사를 쓸 당시 꼼꼼히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사를 본 담당자는 물론 윗선에서 난리가 났다. 얼굴이나 다름없는 회사명을 잘못 썼으니 불호령이 떨어질 것은 당연했다. 홍보를 담당했던 직원이 문책을 당했고, 홍보 담당자가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일은 이상하게 꼬여갔다.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은 나인데, 업체에서는 홍보를 잘못했다며, 홍보 담당자에게 사표를 요구한 것이었다. 다음 호에 정정 기사가 나가긴 했지만 나의 실수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씁쓸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기업 풍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당시 만해도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의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일로 나는 한 동안 의기소침해졌다. 마치 투수가 만루 홈런을 맞고 자신감을 잃은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기사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쓰거나 매출액에 0을 더 붙인다는 등 취재시 잘못 받아 적을 수도 있고, 기사 작성시 오자가 날 수도 있다. PC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오타자는 더욱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대중에게 배포되는 미디어인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글이 대중에 읽힌다는 미디어의 매력이 있는 반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도 나는 후배 기자들의 글을 꼼꼼히 읽는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라하면서라도 이해하고 검토하여 실수가 없게 한다.

에피소드 3. 독자 감동시키기

컴퓨터 잡지 기자들은 독자들의 문의를 자주 받는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의 기사이다 보니 기사 관련 질문도 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질문이 많다. 어떤 때는 본 업무보다 독자 문의를 받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기도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두어번은 전화를 하여 PC에 대한 이것 저것 물어보던 독자가 있었다. 나이는 대략 40대 초반에 심한 경상도 사투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완전 초보자는 아니었지만 질문이 어찌나 많은지 한 번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을 줄 몰랐다. 간혹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가능한 친절하게 전화에 응대해 주었다. 언젠가는 CD 부록에 들어간 게임에 대해 물어보았다. 기능 하나를 몰라 게임을 실행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간단한 질문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몇 일 후인가 그 독자는 다시 전화를 해 왔다. 지난 번 가르쳐준 방법으로 게임을 실행하게 되었고, 그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책을 사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그 독자의 덕으로 책을 10권이나 더 팔 수 있었다.

물론 전체 판매 부수에 비하면 새발에 피지만, 기자라고 해도 어디 10권이나 팔 수 있겠는가? 기자는 기사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자의 평이 기사를 살리고 죽인다. 잘 쓰여진 기사도 좋지만, 그 전에 독자를 배려하고 독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처음 같은 마음으로 임하라

회사에서 운동회를 간 적이 있다. 줄다리기,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직원들이 단합심을 가지고, 활력소가 되었다. 그 중 2인 피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남녀가 한 쌍이 되어 남자가 여자를 공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다. 남자가 공을 맞으면 상관없지만, 여자가 공을 맞으면 둘이 함께 퇴장해야 하는 규칙이다. 나는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전략을 세웠다. 무슨 일이 있던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퇴장은 당하지 않게 되니까.

게임이 중반쯤 되었을까, 내 앞에 공이 떨어졌다. 그 순간 갈등을 하게 되었다. 공을 주워 던지면 다른 팀을 퇴장시킬 수 있지만 처음 전략대로 공을 잡지 않고 여자만 지킬 수도 있다. 불과 1초도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십번의 생각을 한 뒤 공을 잡으려 여자를 떼어 놓고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여자가 공을 맞았고, 함께 퇴장을 해야 했다. 나의 느린 운동 신경 탓도 있었겠지만, 처음의 약속대로 상대방만 지켰으면 끝까지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든 처음 일을 시작하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마지막까지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힘든 상황이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처음 자신과의 약속을 되새긴다면 한결 힘이 될 것이다. **KCRC**